

충격 흡수용 과일상자 개발

- 충남 천안 직산농협

명절 등에 배달되는 농산물 가운데 택배업자들이 외부 충격에 약한 과일 등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공산품처럼 아무렇게나 취급하기 때문에 상품이 파손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산지에선 멀쩡했던 농산물이라도 택배 등 물류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도착했을 땐 품질이 크게 망가져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충격흡수용 과일 상자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농민신문」이 보도(2. 27. 10면)했다.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소개한다.



충격 흡수용 과일상자 개발한 충남 천안 직산농협 포장비용 덜 들고 작업속도 빨라 인건비도 줄어

택배로 운송되는 과일이 파손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과 관련, 충남 천안 직산농협(조합장 한일현)이 충격 흡수용 과일상자를 개발하고 특허까지 취득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과일상자는 완충기능을 높이기 위해 스티로폼을 소재로 사용하고, 난좌 모양의 스티로폼이 위아래 양쪽에서 맞물려 과일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고안됐다. 2010년부터 직산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출하하는 배와 배·사과 혼합세트 등에 사용되고 있고, 2011년 3월에는 특허(제10-1023191호)도 취득했다.

직산농협에 따르면 과거에는 유통과정에서의 상품 파손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 비율이 전체 배 출하량의 1%를 웃돌았지만, 이 포장상자를 사용한 이후에는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존 골판지 상자를 사용할 경우 상자와 난좌·팬캡 등 포장비용이 7.5kg 기준 4000원 정도가 들지만, 개발상자는 과일 망을 포함해 2800원가량으로 상자당 1200원 이상 적게 든다.

더욱이 기존 골판지 상자의 경우 상자를 접고 난좌를 설치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개발된 상자를 쓰면 작업속도를 1.5배가량 높일 수 있어 인건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소재로 스티로폼을 사용하면서 보존기능까지 갖춰, 겨울철 언피해 예방 등에도 효과가 있다. 포장상자 개발을 주도한 민병역 직산농협 전무는 “농산물 유통이 소비자와의 대면판매에서 점차 홈쇼핑·인터넷쇼핑몰 등 택배를 이용한 통신판매로 옮겨가고 있다”며 “농협에서 개발한 포장상자가 농산물 택배의 문제점을 말끔하게 해결하는 한편, 산지의 비용절감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41-583-3751. <천안=농민신문 한재희 기자> 농민신문사

